

누구도 웃지못한 '현대家 전쟁'



울산 현대 주민규(18번)가 1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원정경기에서 전반 33분 머리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다. 양 팀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주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프로축구 경기결과		▶ 12~14일	
춘천	강원 2 : 1 경남		
인천	인천 0 : 2 서울		
제주	제주 1 : 1 포항		
상주	상주 0 : 2 수원		
탄천	성남 0 : 1 대구		
전주	전북 1 : 1 울산		

콤팩트뉴스

英 언론 "손흥민, 새 시즌도 베스트11"



손흥민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14일(한국시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019~2020시즌 토트넘의 예상 베스트11을 전망하면서 팀의 핵심인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했다. 손흥민은 4-2-3-1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날개에 자리했다. 그는 지난 시즌 EPL,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각종 대회에서 총 20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주축 공격수로 맹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의 팀 훈련에 합류한 상태다. 토트넘은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이탈리아)와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 경기를 갖는다.

지동원, 프리시즌 첫 경기서 무릎 부상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1부리그) 마인츠로 이적한 공격수 지동원이 고헨하임과의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다. 마인츠는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동원이 무릎 부상으로 오는 17일 열리는 아이스바탈과 경기에 출장하지 않으며 그라스 훈련 캠프에도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동원은 2018~2019시즌을 끝으로 아우크스부르크를 떠나 마인츠와 3년 계약을 맺었지만, 새 시즌 개막 전부터 무릎 부상에 시달리게 됐다. 지동원은 아우크스부르크 소속이었던 지난해 9월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후 점프 세리머니를 펼치다가 무릎을 다쳐 3개월을 쉬바 있다.

수원 외인 사리치, 알 아흘리로 이적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아흘리는 구단 SNS를 통해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 엘비스 사리치(보스니아)의 영입을 알렸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에 앞서 전날(13일) 수원은 "중동 구단으로 이적을 추진 중인 사리치의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사리치는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다음 주 출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여름 수원에 합류한 사리치는 K리그1 통산 30경기에서 4골·8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 13일까지 도움 7개로 이 부문 공동 1위를 마크했다. 수원은 사리치의 이탈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전반 9분 전북 이도국 PK 선제골 33분 울산 주민규 헤더골로 반격 나란히 승점 1 따내며 순위 유지



'하나원큐 K리그1 2019' 1위 전북 현대와 2위 울산 현대가 1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2번째 맞대결을 펼쳤다. 경기 전 전북(승점 44)이 울산(승점 43)에 승점 1을 앞섰지만 울산이 한 경기를 적게 펼쳐 격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날 맞대결 결과가 두 팀 모두에게 중요했다. 전북은 승리를 통해 1위 수성이 확실했다. 반면 울산은 전북을 꺾으면 독주체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다. 전

북과 울산 모두 총력전을 선언한 이유다. 그러나 팀의 상황은 많이 달랐다.

시즌 내내 수비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북은 최근 공격진에도 공백이 발생했다. 팀 내 최고득점자 김신욱이 상하이 선화로 이적했고 이승기, 한교원, 임선영 등 공격 2선 자원들은 잇따라 부상을 입었다. 중요한 일전이었지만 공격에서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전북 조세 모라이스 감독은 교체멤버에 신에 이성운을 포함시켜야 했다. 모라이스 감독은 "어린 선수가 이렇게 큰 경기를 뛰게 되면 모든 걸 다 쏟으면서 발전할 기회를 얻지 않겠느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이게 팀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은 수비수 불투이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전역에서 제외됐지만 공격 카드는 원하는 만큼 다 꺼내 쓸 수 있을 정도

로 풍족했다. 최근 무릎이 좋지 않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이근호까지 교체 명단에 포함시켰다. 팀 내 최다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주니오를 교체명단에 넣고 주민규를 주전 원톱으로 기용하는 여유도 보였다. 울산 김도훈 감독은 "주민규가 컨디션이 더 좋아보여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홈에서 강한 전북이 초반 주도권을 가져갔다. 문선민의 빠른 돌파가 매우 효과적이었다. 첫 골도 문선민의 발에서 비롯됐다. 전반 9분 문선민은 상대 문전에서 볼을 놓쳤지만 집중력을 발휘해 다시 빼앗겼고, 믹스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이도국이 이를 득점으로 연결해 전북은 1-0으로 앞섰다.

실질 이후 서서히 분위기를 끌어올린 울산은 전반 33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보

경이 크로스한 볼을 주민규가 헤딩 슛해 전북의 골문을 열었다. 주민규를 먼저 내세운 울산 김 감독의 지략 효과가 발휘된 셈이었다.

전반을 1-1로 마치자 역시나 공격자원이 풍족한 울산이 먼저 교체를 통해 분위기 바꾸기에 나섰다. 울산은 후반 7분 이근호, 16분 주니오를 차례로 투입했다. 전북도 후반 17분 이도국을 대신해 이비니를 기용하며 승점 3획득을 위한 집념을 드러냈다. 두 팀은 일일전의 공방을 벌이면서 결승골을 노렸지만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았다. 전북은 막판 주도권을 틀어쥐고 공세를 펼쳤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경기는 1-1로 마무리됐고, 전북과 울산은 나란히 승점 1을 챙기며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주 |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이적설 무소식에도 흔들림 없었던 조현우

성남 원정 내내 신들린 선방쇼 세징야 골 힘입어 대구 1-0 승

대구FC의 조현우(28)는 자타공인 K리그1 최고의 골키퍼다. 그는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눈부신 선방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해외 이적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의 포르투나 뉘셀도

르프가 강하게 대시하면서 그의 이적 여부가 화제가 됐다.

뉘셀도르프가 조현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영입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선수 당사자에게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0일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는 몸살 증세가 맞물리면서 선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조현우

조현우는 14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21라운드 성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다시 선발 출전했다. 월드컵 무대에서 큰 경기를 치러본 선수답게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 전반 16분에는 골을 노리는 상대의 크로스를 쳐낸 직후 곧바로 일어나 온몸을 날려 중거리슈팅까지 막아냈다. 특유의 놀라운 순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8분 뒤인 24분

에는 역습 상황에서 맞이한 위기도 선방해냈다.

조현우가 골문을 지킨 대구는 후반 2분 세징야의 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조현우는 후반 33분에도 성남 주현우가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찬 프리킥을 절묘하게 막아내면서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든든하게 골문을 지킨 조현우를 앞세운 대구는 최근 5경기 무승(3무2패)의 부진에서 탈출하면서 귀한 승점 3을 챙겼다.

성남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황의조, 보르도 이적 뒤엔 '벤투+권창훈' 있었다

에이전트가 밝힌 막전막후

보르도 감독, 권창훈 통해 한국 매료 벤투와 친분 정보 교류... 영입 앞장 황의조 빅리그 의지 큰 몫 "EPL 같겠"

또 한명의 유럽파가 탄생한다. 황의조(27)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 1부리그 보르도가 감바 오사카의 황의조와 4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황의조 측도 이를 확인했다. 이적료는 바이어아웃인 200만 유로(약 26억5000만 원)이다. 13일 홈에서 고별전을 마친 뒤 동료들의 축하 행가례를 받은 황의조는 조만간 프랑스로 건너가 메디컬 테스트와 함께 최종 사인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7년

7월 성남FC에서 감바로 이적한 그는 2년 만에 더 큰 무대를 밟게 됐다. 에이전트 이영중 이반스포츠 사장은 "본인의 유럽진출 의지가 워낙 강했다"고 했다.

하지만 프랑스가 종착역은 아니다. 경유지일 뿐이다. 목표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이다. 즉, 프랑스를 발판삼아 1년 또는 1년6개월 안에 EPL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다. 이 사장은 "황의조가 EPL을 목표로 삼은 건 고등학교 때부터"면서 "늘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를 품고 살았다"고 전했다.

의지가 더욱 강렬해진 건 지난해 아시안 게임과 올해 아시안컵을 통해서다. EPL 정상급 공격수인 동갑내기 손흥민(토트넘)이 자극제가 됐다. 이 사장은 "손흥민과 같이 국가대표팀에서 뛰게 된 동기부여가 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런 자신감과 목표 의식 때문에 중동이나 미국, 아시아권에서 온 수많은 제안들을 단박에 거절할 수 있었다.

파울루 소사 보르도 감독의 구매도 이적에 큰 도움이 됐다. 사실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유럽 진출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게다가 200만 유로의 바이어아웃은 큰 걸림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사 감독의 적극성 덕분에 일이 쉽게 풀렸다.

지난 시즌 경기당 한골도 되지 않는 공격력(38경기 34골)으로 리그 14위에 머문 보르도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다. 중국 슈퍼리그 헨진 취안젠 사령탑(2017.11~2018.10)을 지낸 소사 감독은 당시 권경원(전북)이 그 팀에서 뛰어 한국선수 스타임을 경험했다. 프랑스 디종에서 뛴 권창훈(프라이부르크)을 통해 한국선수의 기량과 성실성도 확인했다. 게다가 포르투갈 출



황의조

신으로 파울루 벤투 한국대표팀 감독과도 친분이 깊다. 결국 황의조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에이전트 역할이 컸다. 이 사장에 따르면, 보르도는 본전을 먼저 생각했다. 황의조 나이를 감안하면 이적시킬 때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때 이 사장이 "빅리그로 가지 못하면 투자비용을 만회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보르도를 설득했다. 그런 약속이 구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선수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감독인데, 그런 점에서 황의조는 행운이다. 또 보르도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도 영국에서 많은 경험을 한 인물이다. 그도 황의조의 플랜을 잘 알고 있다"면서 "EPL 진출을 꿈꾸는 황의조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현길 기자 choi2@donga.com